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3. Vol 13. No 2, pp. 73-94

과학영재아동의 적응, 자기지각,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국행 (전북대학교)
kukhaeng@moak.chonbuk.ac.kr
이영환 (전북대학교)
yyh3838@moak.chonbuk.ac.kr
김현지 (전북과학대학)
2003child@hanmail.net

요 약

본 연구는 과학영재아동의 개인 및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수준, 성별에 따른 적응,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악하며,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와 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로는 첫째, 과학영재아동의 개인적응, 사회적응, 자기지각과 교사지지는 일반 아동의 이러한 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응, 부모지지, 친구지지는 과학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과학영재아동의 자기기회, 편견, 사회적 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 부모지지, 교사지지, 학교친구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학영재아동의 성취동기, 자기기회, 애착 및 사회적 긍정성은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학영재아동의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영재아동의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beta=.26$), 친한친구지지($\beta=.25$), 부모지지($\beta=.21$), 학교친구지지($\beta=.21$)순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41%이었다. 또한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지지($\beta=-.32$), 친한친구지지($\beta=-.28$), 자아가치감($\beta=-.28$)순이고 이중 부모지지가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8%이었다.

주요어 : 과학영재아동, 적응, 자기지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성인뿐 아니고 아동에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은 성장 발달과정에서 많은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로의 전환시기는 학습에 대한 주위의 기대감과 성취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성인과는 다른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또한 이 시기는 발달과정상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신체 및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중요한 생활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사건에 의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사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중요 생활사건에 비해 별로 극적이지는 않지만 더 보편적이며, 인지적 평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고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며, 건강을 더 잘 예측해 준다(Lazarus & Folkman, 1984).

영재아의 경우 보통 아동과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재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재들이 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일쑤이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천성적으로 침착할수록 외적 상황에 덜 당황해 한다. 그렇지만 영재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이질감으로 인하여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Webb, 1993). 또한 영재아의 경우 평재보다 사회·정서적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재아의 성취나 적응은 평재들에 비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영재아들이 사회적·정서적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것들을 소화해 내지 못할 경우 그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은 발현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영재의 특성들은 주로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되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영재의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고 인지적 영역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노력들에 비하면 영재의 정의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의적 영역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우리 나라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들 또한 대부분 영재아의 개념정의와 판별도구 개발, 영재발굴, 선발 및 그들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영재아들의 적응, 자가지각, 사회적지지, 스트레스등 사회정서발달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영재아동의 개인 및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수준, 성별에 따른 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악하며,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와 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고 영재아의

사회적 성취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개인적응, 사회적응, 부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과학영재아동의 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과학영재아동의 적응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지각,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과학영재아동

미국문부성(United States of Office of Education, USOE)이 1978년에 내린 영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재아/재능아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훌륭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아동으로서 그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 제공하는 것 이상의 변별적인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는 아동들은 다음의 한 분야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성취를 나타내거나 성취할 잠재 능력이 있는 아동들이다. Gardner(1983)의 다중 지능이론을 바탕으로 영재를 정의해보면 영재는 각 지능분야별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다. 각 분야별 지능은 다른 분야의 지능과는 별개의 것이며, 발달도 독립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만 우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분야의 지능에 걸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학영재를 다루고자 하는데 다음의 각 학자는 과학영재아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Platow(1984)는 과학영재의 독특한 특성으로 과학분야에 대한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학적이고 계산적이며, 이해력이 좋고 분석적이며 적용력도 뛰어나다고 하였다. 또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려 깊고 무한한 탐구심이 있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의미를 주고 연관성을 분석하고 조사하며 결론을 도출하고 근거 자료를 찾아 검사와 실험을 하는 특성을 가지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며, 독립적

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술선수범한다고 하였다. 송경애(2001)는 과학영재는 주변환경 뿐 아니라 지적 탐구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히 높고, 반성적 합리적 사고에 뛰어나며, 특히 탐구과정에서 원인, 이유, 근거, 배경, 절차등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답변을 끈질기게 궁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복잡한 과제의 학습을 선호하며, 자신감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며 스스로 통제를 잘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책임의식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박성익(1995)은 과학영재들은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소유함으로써 자발적 자기주도 학습, 사고력을 요하는 복잡한 과제중심학습, 참신성을 갖고 있는 과제중심학습,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학습,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영재아동의 특성으로는 인지적인 면, 과제집착력등 학업적 호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들 연구의 대다수는 이러한 인지적, 학업적 호기심의 연구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2. 영재아의 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지지

가. 영재아의 적응

Baughman과 Welsch(1982)는 적응이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즉, 유기체가 장애를 극복하고 욕구충족을 위해 변화시키는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 및 사회적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Hinshow(1942)는 적응이란 개인이 갖는 다양한 욕구를 사회가 적당히 받아들이고, 또 사회로부터의 요구를 개인이 원만하게 받아들여서 개인과 사회간에 불균형과 불안정 등의 긴장 없이 조화롭고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한국교육평가센터, 1998, 재인용). 민영순(1978)은 적응이란 개인이 관계에 있거나 사회의 기준,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영재아의 경우 그들은 매우 유능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업적을 달성하리라 믿고 있으며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다. 이주현(1997)은 영재집단과 평재집단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특성을 비교하여 학습특성, 동기 특성, 행동특성, 지도력 등에 관하여 모두 영재집단 학생들이 평재집단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특성을 소유한 것으로 지적했으며, 학교생활의 적응에 관하여 평재들보다 잘한다고 하였다. 또 영재들이 평재들보다 교사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있으며 새로

은 상황에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나. 영재아의 자가지각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학자에 따라 자아존중감(Coopersmith, 1967), 자아개념(Rosenberg, 1979), 자아효율성(Bandura, 1981), 자가지각(Harter, 1982)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으며 각각의 명칭으로 단일차원적 또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Harter와 Connell(1984)은 이러한 단일차원적, 그리고 다차원적 개념 두 가지를 통합하여 자아개념이 역량 및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서 형성되며,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구조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Harter(1987)는 아동의 특정한 영역에 대한 역량 지각이나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 모두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자아가치감에 대한 단일차원적 입장과 다차원적 입장을 통합과 더불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자가지각에 대한 구체적 하위영역들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자가지각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Lehman과 Erdwins(1981)는 영재는 비영재 집단보다 자가지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Janos(198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지적 영재들은 비영재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과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재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편이며, 외부의 통제 없이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안다(전경원, 2000). Karnes와 Whorton(1988)은 영재아가 평재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대인관계도 우수하며 적응도 더 잘한다고 하였다.

다. 영재아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 자신이 관심받는 대상이며, 사랑받고, 가치있는 존재이고, 의사소통관계망의 일원임을 믿게하는 정보다(Cobb, 1976). 한성희(2002)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들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영재 중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지지지각이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 격려, 인정에 대한 평가에서 또래나 교사보다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지지에서 성차를 보였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재아의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외부적인 영향이며, 어떤 압박이나 강제적인 중압으로서의 외부 자극조건, 환경적 요구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근철(1992)은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별로 관계가 없는 가정, 경제, 종교문제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학과, 경쟁의식등에 대해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공환택(1990)은 영재의 스트레스 반응에서의 평균점수는 평재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재자신이 생활에서 직면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반응하는 행동양식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강한 시간적 긴박감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Webb(1993)은 영재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이질감으로 인하여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송경애(2001)의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들보다 일반 학생들이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고 하였다.

4. 선행연구고찰

먼저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영재집단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스트레스를 연구한 윤재은(1994)은 특수 목적고 영재학생들이 일반고 영재학생들보다 적응도 잘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고순희(1995)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경애(2001)의 연구에서 과학영재들보다 일반 학생들이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과학영재들이 학업성적 면에서 일반학생들보다 우수하여 학업성적이 청소년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현실에서 가정과 학교의 지지와 인정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완충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했다.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김성수(1999)는 스트레스 지원원의 효율성에 대하여 과학영재들은 '동성친구'를 가장 효율적인 지원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2위로 부모, 3위로 형제자매라고 하였다. 한성희(2002)는 중학생 영재는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 격려, 인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또래나 교사보다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어 주위사람들로부터 도움과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윤혜정(1993)에 의하면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사랑, 이해, 친밀감, 관심을 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되며 필요할 때 충고나 정보, 물질적 도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였다.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성적, 문제행동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혜전(1993)의 연구에서 친구관계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는 아동은 친구관계 외에 현재 생활에도 부적응한다고 밝힘으로써 친구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함을 시사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100명의 아동이며, 이들은 학교장, 교사추천 및 전북대학교 과학영재연구소의 과학과 수학시험을 통해 선발된 과학영재 아동이다. 설문결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89명(남 59명, 여 30명)이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2. 측정도구

가. 아동의 적응능력측정도구(스트레스 척도포함)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아동의 적응능력검사도구는 한국교육평가센터(KETC)에서 1998년 개발하여 표준화과정을 마친 종합적응능력검사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응영역(자아개념 12문항, 성취동기 10문항, 자기기획 15문항), 사회적응영역(사교성 15문항, 애착 9문항, 사회적 긍정성 10문항), 부적응영역(스트레스 20문항, 욕구좌절 10문항, 편견 12문항)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각 2, 3, 4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각각의 영역의 적응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총점으로 자아개념 24점, 성취동기 20점, 자기기획 30점, 애착 18점, 사교성 30점, 사회적 긍정성 20점, 스트레스 40점, 욕구좌절 10점, 편견 24점으로 분포되어 있다.

나. 아동의 자가지각 측정도구

아동의 자가지각 측정도구는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변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마친 이영환·한종혜·박성옥(1997)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자가지각의 하위영역은 학업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기가치감으로 6영역이며, 이들 각각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각 주어진 문항은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로 양분되어 있다. 아동들은 각 문항에서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 중에서 어느 한 쪽을 먼저 택한 후, 택한 진술이 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정하게 되며, 각 하위영역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가지각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아동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아동의 사회적 지지측정도구는 한미현(1996)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은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학교친구의 지지, 친한 친구의 지지로 4영역이며, 각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각 주어진 문항은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로 양분되어 있다. 아동들은 각 문항에서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중에서 어느 한 쪽을 먼저 택한 후, 택한 진술이 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 교사, 친구들로부터 풍부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을 이용하였다. 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적응, 자가지각, 사회적 지지의 차이분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적응, 자가지각,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간에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개인적응, 사회적응, 부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비교

[연구문제 1] 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응(개인적응, 사회적응, 부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가?

<표IV-1> 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개인적응, 사회적응, 부적응의 비교

적응		과학영재아동(n=89)	일반아동(n=1,100)
개인 적응 영역	자아개념	16.71(3.64)	9.34(2.70)
	성취동기	13.03(3.83)	7.56(2.73)
	자기기획	19.15(5.28)	16.43(4.86)
사회 적응 영역	사교성	20.36(4.93)	17.18(4.87)
	애착	15.36(2.47)	12.42(3.15)
	사회적 긍정성	14.92(3.09)	10.17(4.87)
부적응 영역	스트레스	9.91(5.51)	12.22(5.60)
	욕구좌절	5.09(2.95)	5.63(2.32)
	편견	6.53(3.93)	8.74(3.64)

* 전국 중학교 1학년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마친 표준화대상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IV-1>의 결과, 과학영재아동의 개인적응 하위영역(자아개념, 성취동기, 자기기획), 사회적응 하위영역(사교성, 애착, 사회적 긍정성)은 일반아동의 이러한 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욕구좌절, 편견등 부적응 하위영역은 과학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과학영재아동이 개인적응(자아개념, 성취동기, 자기기획)과 사회적응(사교성, 애착, 사회적 긍정성) 수준이 일반아동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적응 수준(스트레스, 욕구좌절, 편견)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2> 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자가지각, 사회적 지지의 비교

		과학영재아동(n=89)	일반아동(n=221)
자가지각	학업역량	3.07(0.48)	2.23(0.58)
	사회적역량	2.71(0.56)	2.49(0.55)
	운동역량	2.69(0.78)	2.46(0.71)
	신체외모역량	2.58(0.63)	2.00(0.63)
	행동품행역량	2.58(0.44)	2.35(0.46)
	자아가치감	2.88(0.58)	2.37(0.55)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3.44(0.54)	3.75(0.69)
	교사지지	3.33(0.61)	3.03(0.89)
	친구(학교+친한)지지	3.32(0.50)	3.48(0.65)

* 서울시 중학교 한 곳의 1학년 학생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IV-2>의 결과, 과학영재아동의 자가지각 하위영역(학업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은 일반아동의 자가지각 하위영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하위영역에서 교사지지는 과학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일반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학영재아동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가지각이 높고 교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있다는 인식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친구지지는 일반아동이 인식하는 것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2. 과학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연구문제 2] 과학영재아동의 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표IV-3> 과학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개인적응, 사회적응 및 부적응의 차이

		전체(n=89)	남(n=59)	여(n=30)	t값	p
개인 적응	자아개념	16.71(3.64)	16.27(3.93)	17.57(2.85)	-1.775	.080
	성취동기	13.03(3.83)	12.56(4.03)	13.97(3.27)	-1.655	.102
	자기기획	19.15(5.28)	17.85(5.24)	21.70(4.43)	-3.446**	.001
	시간기획	3.63(1.83)	3.31(1.84)	4.27(1.66)	-2.406*	.018
	목표기획	3.66(1.61)	3.37(1.55)	4.23(1.59)	-2.451*	.016
	건강기획	3.91(1.16)	3.68(1.22)	4.37(0.89)	-2.733**	.008
	자료기획	3.85(1.41)	3.64(1.42)	4.27(1.31)	-2.002*	.048
	인간관계기획	4.09(1.44)	3.85(1.55)	4.57(1.04)	-2.594*	.011
사회 적응	사교성	20.36(4.93)	19.78(5.30)	21.50(3.94)	-1.571	.120
	애착	15.36(2.47)	15.14(2.61)	15.80(2.14)	-1.203	.232
	사회적 긍정성	14.92(3.09)	14.90(3.15)	14.97(3.03)	-.097	.923
부적응	스트레스	9.91(5.51)	9.90(5.17)	9.93(6.24)	-.028	.978
	욕구좌절	5.09(2.95)	5.20(2.77)	4.87(3.32)	.507	.613
	편견	6.53(3.93)	7.73(3.91)	4.17(2.73)	4.998***	.000
	남녀	1.30(1.56)	1.83(1.59)	0.27(0.83)	6.106***	.000
	공부	1.85(1.26)	2.22(1.26)	1.13(0.90)	4.682***	.000
	빈부	1.80(1.20)	1.92(1.19)	1.57(1.19)	1.302	.196
외모	1.57(1.32)	1.76(1.39)	1.20(1.10)	1.927	.057	

*p<.05; **p<.01; ***p<.001

<표IV-3>의 결과, 과학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때, 과학영재아동의 자기기획과 편견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기획의 모든 하위영역(시간기획, 목표기획, 건강기획, 자료기획, 인간관계기획)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기획 즉, 목표 달성능력과 더불어 인간의 성공, 적응에 중요한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의 하위영역중 남녀편견과 공부편견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에 대한 편견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4> 과학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전체	남(n=59)	여(n=30)	t값	p
자기 지각	학업역량	3.07(.48)	3.02(.49)	3.16(.43)	-1.248	.215
	사회적역량	2.71(.56)	2.61(.59)	2.92(.43)	-2.533*	.013
	운동역량	2.69(.78)	2.72(.74)	2.63(.86)	.514	.608
	신체외모역량	2.58(.63)	2.58(.61)	2.58(.68)	.049	.961
	행동품행역량	2.58(.44)	2.49(.45)	2.75(.37)	-2.742**	.007
	자아가치감	2.88(.58)	2.76(.55)	3.13(.57)	-3.019**	.003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3.44(.54)	3.35(.60)	3.60(.38)	-2.411*	.018
	교사지지	3.33(.50)	3.23(.66)	3.50(.46)	-2.196*	.031
	학교친구지지	3.09(.51)	2.98(.51)	3.28(.46)	-2.716**	.008
	친한친구지지	3.54(.62)	3.52(.64)	3.58(.60)	-.446	.657

*p<.05; **p<.01

<표IV-4>의 결과, 과학영재아동의 자기지각 하위영역중 사회적 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과 사회적지지 하위영역중 부모지지, 교사지지, 학교친구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 교사, 학교친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과학영재아동의 적응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문제 3] 과학영재아동의 적응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표IV-5> 과학영재아동의 적응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사회적응			스트레스
		사교성	애착	사회적 긍정성	
개인 적응	자아개념	.155	.163	.023	-.030
	성취동기	.358***	.380***	.181	-.271*
	자기기회	.288**	.424***	.133	-.284**
스트레스		-.181	-.427***	-.349***	

*p<.05; **p<.01; ***p<.001

<표IV-5>의 결과, 과학영재아동의 개인적응, 사회적응,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개인적응영역중 성취동기와 자기기회 및 사회적응영역중 애착, 사회적 긍정성은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기기회를 잘 할수록,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긍정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지각, 사회적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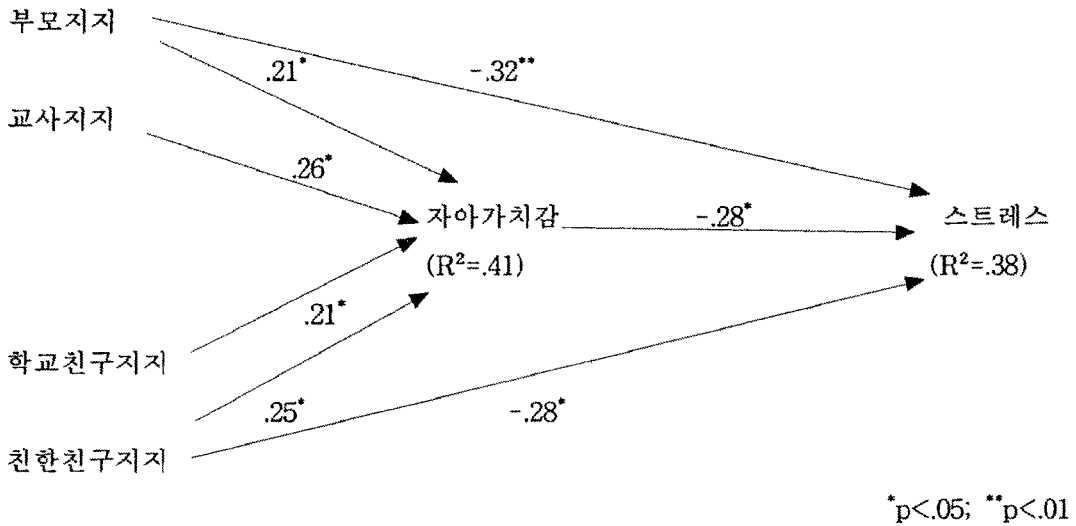
[연구문제 4]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지각,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표IV-6> 과학영재아동의 자가지각,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부모지지	교사지지	학교친구지지	친한친구지지	
자 가 지 각	학업역량	.305**	.307**	.224*	.309**	-.167
	사회적역량	.095	.111	.597***	.458***	-.300**
	운동역량	.138	.011	.293**	.327**	-.280**
	신체외모역량	.254*	.165	.345**	.336**	-.397***
	행동품행역량	.364**	.456***	.332**	.288**	-.411***
	자아가치감	.428***	.463***	.441***	.447***	-.499***
스트레스		-.474***	-.325**	-.233*	-.412***	

*p<.05; **p<.01; ***p<.001

<표IV-6>의 결과, 과학영재아동의 자가지각,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학업역량을 제외한 자가지각(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부모, 교사, 학교친구, 친한 친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IV-1]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 교사, 학교친구, 친한친구지지 및 자아가치감의 경로분석

[그림IV-1]의 결과,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 교사, 학교친구, 친한 친구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가치감의 경로분석결과, 과학영재아동의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beta=.26$), 친한친구지지($\beta=.25$), 부모지지($\beta=.21$), 학교친구지지($\beta=.21$)순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41%이었다. 또한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지지($\beta=-.32$), 친한친구지지($\beta=-.28$), 자아가치감($\beta=-.28$)순이고 이중 부모지지가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8%이다. 부모지지, 교사지지, 학교친구지지, 친한친구지지는 아동의 자아가치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과학영재아동의 자아가치감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지지와 친한친구지지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와 친구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으므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교친구지지는 모두 간접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교사나 학교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영재아동의 개인 및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수준, 성별에 따른 적응,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악하며,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와 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고 영재아의 사회적 성취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며,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아동의 개인적응 하위영역(자아개념, 성취동기, 자기기획), 사회적응 하위영역(사교성, 애착, 사회적 긍정성)은 일반아동의 이러한 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욕구좌절, 편견등 부적응 하위영역은 과학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과학영재아동이 개인적응(자아개념, 성취동기, 자기기획)과 사회적응(사교성, 애착, 사회적 긍정성)수준이 일반아동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적응 수준(스트레스, 욕구좌절, 편견)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현(1997)은 영재 집단 학생들이 평재집단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특성을 소유한 것으로 지적했으며, 학교생활의 적응에 관하여 평재들보다 잘한다고 하였고 또한 영재들이 평재들보다 교사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긍정적 적응이 높고, 부정적 적응이 낮다고 한 본 연구를 지지해 준다. 또한 송경애(2001)의 연구에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과의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는 일반학생들이 과학영재보다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다. 즉 영재아동은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영재아동의 자가지각 하위영역(학업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은 일반아동의 자가지각 하위영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하위영역에서 교사지지는 과학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일반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학영재아동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가지각이 높고 교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있다는 인식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친구지지는 일반아동이 인식하는 것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민진숙(1998)은 영재의 자가지각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전반적으로 영재는 자가지각 수준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역량지각이 높다는 연구를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으나 한성희(2002)는 중학생 영재는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 격려, 인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또래나 교사보다는 가

족으로부터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과학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때, 과학영재아동의 자기기획과 편견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기획의 모든 하위영역(시간기획, 목표기획, 건강기획, 자료기획, 인간관계기획)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기획 즉, 목표달성능력과 더불어 인간의 성공, 적응에 중요한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의 하위영역 중 남녀편견과 공부편견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에 대한 편견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재아동의 자기기획과 편견은 성별에 따른 차이의 연구가 없었으나 자기기획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기기획이 높았으며, 편견의 경우 남아가 높았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가부장적 사회구조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남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성차를 보이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과학영재아동의 자기지각 하위영역중 사회적 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과 사회적지지 하위영역중 부모지지, 교사지지, 학교친구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 교사, 학교친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Furman과 Buhrmester(1992)는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친밀감과 동료애를 높게 지각하였다고 하였으며, Dubow와 Ullman(1989)의 연구에서는 여자 아동이 남자아동보다 좀더 사회 지지망이 넓었고 교사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지지 행위빈도인 지지실행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성희(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교사지지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민진숙(1998)의 연구에서 자기지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기지각의 영역중 학업역량과 운동역량에서 그 차이가 낮고 남자영재가 학업역량과 운동역량 영역에서 여자영재아보다 역량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과학영재아동의 개인적응, 사회적응,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개인적응중 성취동기와 자기기획 및 사회적응중 애착, 사회적 긍정성은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기기획을 잘 할수록,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긍정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

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순희(1994)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넷째, 과학영재아동의 자가지각,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학업역량을 제외한 자가지각(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역량, 행동품행역량,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부모, 교사, 학교친구, 친한 친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명구·김경자(1995)는 자아가치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모와의 관계와 교우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밝혔으며, 박성옥·이영환·한종혜(1996)는 신체용모에 대한 역량 지각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고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전 영역에 걸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 교사, 학교친구, 친한 친구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가치감의 경로분석결과, 과학영재아동의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beta=.26$), 친한친구지지($\beta=.25$), 부모지지($\beta=.21$), 학교친구지지($\beta=.21$)순이고 이들의 설명력은 41%이었다. 또한 과학영재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지지($\beta=-.32$), 친한친구지지($\beta=-.28$), 자아가치감($\beta=-.28$)순이고 이중 부모지지가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8%이다. 부모지지, 교사지지, 학교친구지지, 친한친구지지는 아동의 자아가치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과학영재아동의 자아가치감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지지와 친한친구지지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와 친구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으므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교친구지지는 모두 간접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교사나 학교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종혜·박성옥·이영환(1997)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사회적지지, 가족의 사회적지지, 교사의 사회적지지가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가치감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적지지, 친한친구지지, 자아가치감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재아동에 대한 정의적인 면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각각의 연구를 지지해줄 수 있어야겠고, 과학영재아동이 당면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정밀히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위의 결론을 타당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영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 더 나아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영재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정의적인 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스트레스, 자기지가, 사회적 지지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영재의 연구로서 영재아 주변에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 즉 부모변인, 가정환경변인, 교사변인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인들을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영재들의 적응, 자기지가, 사회적지지, 스트레스가 그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그들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기초자료로서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순희(1995).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적응의 관계-과학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공환택(1990). 고등학교 영재집단의 스트레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김성수(1999). 고등학교 과학영재 집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과학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민영순(1978).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민진숙(1998). 영재의 또래지위와 자가지각.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성옥, 이영환,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역량지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발표논문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추계학술대회.
- 박성익(1995). 영재교육에 있어서의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 *영재교육연구*, 5(1).
- 서혜전(199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언어적 표출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송경애(2001). 중학교 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육근철(1992).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과학영재연구* 1(1).
- 윤재은(1994). 영재집단의 학교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및 그 대처방법.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 지지지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환, 한중혜, 박성옥(1997). 외국 척도의 국내 연구적응에 있어서 문제점. *아동권리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창간호.
- 이주현(1997). 영재아의 학교적응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전경원(2000).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서울 : 학문사.
- 최명구, 김경자(1995). 아동의 자기 역량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제 13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 연구소.

- 한국교육평가센터(1998). 종합적응능력검사도구. 대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성희(2002). 영재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한종혜, 박성욱, 이영환(1997).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 6(1).
- Bandura, A.(1981). Self-referent thought: A developmental analysis of self-efficacy. In J. H. Flavell & L. Ross(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social network.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Denver.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Y: Basic Books.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 of Denver.
- Harter, S. (1987). The determinants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Children. In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John Wiley & Sons, Inc.
- Harter, S., & Connell, J. P.(1984). A structural modal of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achievement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control,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in the cognitive domain. In J. Nicholls(Ed.) *The*

-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Greenwich, CT: JAI Press.
- Janos, P. (1983).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of very superior intellectual ability*. Ohio State Univ.
- Karnes, F. A. & Whorton, J. E. (1988). Attitudes of intellectually gifted youth toward school. *Roeper Review*, 10(3), 173-17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
- Platow, J. A. (1984). Handbook for Identifying the Gifted/Talented U.S.A.: Ventura Country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in)
- Rosenberg, J. A.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A. H. Heller, K. Monks, F. J. & Passow,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Oxford: Pergamon press.

Abstract

A Study on Science-gifted Children's Adjustment, Self-Percept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Kuk-Haeng Lee, Young-Hwan Yee, & Hyoun-Ji Kim

In this study, it was compared how different the adjustment, self-percept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between science-gift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and the difference between gifted boys and girls. And it was identified what are the effects on stress of science-gift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89 science-gifted children of the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at JeonJu. Science-gifted students in this study were identified through the teacher nomination and CNU(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ience & Math Tests. We used the standard object as the comparative group (general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all personal-adjustment and social-adjustment domains, self-perception and teacher support of science-gifted childr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children. All disadjustment domains, parent support and friend support of science-gifted childre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general children. Second, the self-planning, prejudice, social competence, behavioral conduct, global self worth,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and classmate support of the science-gifted children ha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Third, the motive of accomplishment, self-planning, attachment and social-affirmation of the science-gifted children correlated negatively with their stress. Fourth, the soci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global self worth and social support of the science-gifted children correlated negatively with their stress. The global self worth of the science-gifted children ha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variables such as teacher support, close friend support, parent support and classmate support in the other of nam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eacher support. The stress of the science-gifted children ha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variables such as parent support, close friend support and global self worth in the other of nam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parent support.

Key words: science-gifted children, adjustment, social support, self-perception and stress

1차 심사 : 2003. 5. 17.
발 표 : 2003. 5. 31.
2차 심사 : 2003. 6. 10.